

한국퀘벡학회 2025년도 제27차 정기학술대회

27^{ème} Colloque de l'ACEQ

캐나다와 퀘벡의 원주민 문학을 만나다

À la rencontre des littératures autochtones du Canada et du Québec

- | 일시 2025년 11월 15일 (토) 11:30-18:00
- |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 세미나실
- | 주최 한국퀘벡학회
- | 주관 한국퀘벡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학부
- | 후원 주한퀘벡정부대표부, 국제퀘벡연구협회(AIEQ)

- | **Date** Le samedi 15 novembre 2025, 11h30-18h00
- | **Lieu** Université Hankuk des Études étrangères
(Professor's Building, Seminar Room)
- | **Organisateur** Association Coréenne d'Études Québécoises (ACEQ)
- | **Hôte** Association Coréenne d'Études Québécoises (ACEQ)
Université Hankuk des Études étrangères
- | **Partenaire** Délégation du Québec à Séoul
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études québécoises (AIEQ)

프로그램

개회 및 총회		사회 : 오보배 (강원대학교)
11:30-12:00	등록	
12:00-12:20	개회사	신정아 (한국퀘벡학회 회장)
	환영사	다미앵 페레이라 (주한퀘벡정부대표부 대표)
12:20-12:30	일본퀘벡학회 참석 보고	김보현 (경기대학교)
12:30-12:50	총회	
12:50-13:20	점심식사 및 교류의 시간	

1 부		원주민 문학	사회 : 오보배 (강원대학교)
13:20-14:10	발표 1	Les littératures autochtones et la pratique de l'histoire littéraire : pour une approche plurilingue et transautochtone (프랑스어 발표)	토론 김지현 (서강대학교)
	브라데트 마리-에브 BRADETTE Marie-Ève (라발대학교, 퀘벡시티)		
14:10-14:55	발표 2	Évoquer l'indicible : territoires, mémoires et langues comme lieux de réappropriation dans <i>Nauetakuan, un silence pour un bruit</i> (프랑스어 발표)	토론 김보현 (경기대학교)
	코노 미나코 KONO Minako (릿교대학교, 도쿄)		
14:55-15:05	휴식		
15:05-15:50	발표 3	Canadian Aboriginal mythology and English-speaking Indigenous Literature (영어 발표)	토론 기영인 (전남대학교)
	강석진 (한국항공대학교)		
15:50-16:10	휴식		

2 부		퀘벡 문학	사회 : 김모세 (한국외국어대학교)
16:10-16:55	발표 4	포스트휴먼과 포스트젠더 - 엘리자베스 보나르뷔르 Élisabeth Vonarburg의 『시테의 침묵 <i>Le Silence de la Cité</i> 』을 중심으로	토론 권서원 (강원대학교)
	이송이 (부산대학교)		
16:55-17:40	발표 5	와즈디 무아와드의 <약속의 피> 4부작에 나타난 관계의 시학	토론 홍인혜 (연세대학교)
	이주영 (성균관대학교)		
17:40-18:00	종합토론 및 폐회		

| 학술대회 소개 |

1970년대에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원주민 문학 연구는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20세기 중반 탈식민시대에 접어들며 서구중심적 문학 정전(canon)의 정당성과 허구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이제까지 가시화되지 않았던 소수 공동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윤리적 각성을 기반으로, 원주민 문학은 세계 문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코퍼스로 여겨져 왔다. 특히 원주민 문학에 대한 관심은 아메리카 대륙을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은 땅으로서 단순한 피해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미국과 캐나다의 건국 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소외시키고 말았던 또 다른 존재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이들에 대한 폭력의 역사에 대한 성찰로 시선을 전환하게 한다.

나아가, 이들의 문학을 끌어안고 이에 관심을 갖는 일은 미국과 캐나다 등 식민지 국가들의 정체성이 다층적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인식하게 하는 것은 물론, 퀘벡 원주민 문학의 경우, 프랑스 식민자들의 후손로서의 피지배자 위치와 퀘벡 내에서 원주민에 대한 지배자의 위치가 중첩되어 드러나는 식민성의 복합적인 층위를 탐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원주민 문학은 구전문학(littérature orale)과 기록문학(littérature écrite)의 경계를 허무는 탈식민주의 문학 연구와 맥을 같이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학이라는 개념 자체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기여한다.

본 학술대회는 1부에서는 원주민 문학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퀘벡 내 저명한 원주민 문학 연구자 마리-에브 브라데트(Marie-Eve Bradette) 교수, 일본 퀘벡학회의 원주민 문학 연구자인 코노 미나코 교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미문학 내 원주민 문학 연구 권위자인 강석진 교수로 구성되어, 다양한 국적에서 비롯된 다양한 시각은 물론, 불어권 및 영어권 작품들을 아우르는 풍요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어 2부는 원주민 문학에 대한 논의에 국한하지 않고, 퀘벡 문학의 흐름을 이끄는 중요한 작가군 중 여성 작가 연구를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이끌고 있는 이송이 교수, 그리고 국내 퀘벡 문학 분야의 미래를 짊어질 신진 연구자로서 이주영 박사과정생으로 구성되어, 퀘벡 문학에 대한 보다 다채롭고 심도있는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 발표 요약 |

1. 원주민 문학과 문학사 서술의 실천 — 다언어적이고 초(超)원주민적인 접근을 위하여 (마리-에브 브라데트)

『Native Literatures: Seeking a Critical Center』의 저자는 아니쉬나베 원주민 문학 그 자체로부터 솟아오르는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미 확립된 이론적 틀이나 장르적 범주에 문학을 끼워 맞추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접근은 원주민의 목소리를 비평 담론의 중심에 다시 놓고, 서구적 패러다임 밖에서 문학사를 새롭게 사유하려는 시도로서, 언어와 지역을 넘나들며 퀘벡의 원주민 문학사를 다시 써 내려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를 제공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조슬랭 시위(Jocelyn Sioui)의 전기적 에세이 *Mononk Jules*(2020)과 아니쉬나베 극작가 에밀리 모네(Émilie Monnet)의 희곡 *Marguerite, le feu*(2023)라는 두 작품을 중심으로, 이들이 문학사 서술의 새로운 비평적 모델을 어떻게 제시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이 연구는 언어적, 지리적, 젠더적 이유로 주변화되어 온 원주민 여성 작가들의 위치를 재고하며, 트랜스-원주민적(Allen, 2012) 문학사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어떤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2. 말할 수 없는 것을 불러내기 — 『나우에타관, 소리를 위한 침묵』에서 ‘영토’, ‘기억’, ‘언어’가 재전유의 장(場)으로 작동하는 방식 (코노 미나코)

본 발표에서는 나타샤 카나페 폰텐(Natasha Kanapé Fontaine)의 첫 소설 *Nauetakuan, un silence pour un bruit*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영토’, ‘기억’, ‘언어’라는 주제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과 조상의 발자취를 어떻게 다시 그려내는지를 살펴본다.

3. 캐나다의 신화와 원주민 문학 (강석진)

캐나다의 문학과 문학의 특징의 하나는 원주민들의 상상력과 그들의 문화가 살아 움직인다는 점이다. 폴라인 존슨(Pauline Johnson)의 『밴쿠버의 전설』(Legends of Vancouver)에서 촉발된 원주민 전설과 신화에 대한 관심은 사이러스 맥밀란(Cyrus Macmillan)의 원주민 신화와 전설 이야기의 출간으로 이어지고, 이후 여러 캐나다 작가들이 원주민들의 신화와 전설을 토대로 창의적 작품을 낳게 된다. 신화는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형성과 사회적 관습의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상상력과 문학적 유산에 대한 연구에도 큰 의미가 있다. 신화와 전설은 캐나다 문학의 심층부에 하나의 큰 층을 이루고 있는데, 1960년을 전후로 하여 도덕적인 면에서 심미적인 면을 강조하는 성향으로 변모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원주민 문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존재는 트릭스터라는 인물이다. 한편으로는 신적인 면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 본성의 허약한 면을 보여주는 초현실적인 존재로 삶의 지혜와 모순을 잘 제시해준다.

4. 포스트휴먼과 포스트젠더 - 엘리자베스 보나르뷔르 Elisabeth Vonarburg의 『시테의 침묵 *Le Silence de la Cité*』을 중심으로 (이송이)

퀘벡의 SF 문학계를 대표하는 보나르뷔르의 *Le Silence de la Cité*는 작가 특유의 세계관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포스트 휴먼의 재현과 인공지능적인 글쓰기를 통해, 서구 전통적인 이분법을 균열시키며 이 이분법을 통한 위계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같은 작가의 시도는 결국 기존의 성차를 재구성하고 가부장적 헤게모니를 역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5. 와즈디 무아와드의 <약속의 피> 4부작에 나타난 관계의 시학 (이주영)

무아와드의 <약속의 피> 4부작은 작가의 개인적 경험과 더불어 인간과 관계에 대한 보편적 성찰을 담고 있다. 본 연구는 퍼즐-뿌리-리즘 개념을 중심으로 4부작을 비교 분석한다. 이 구조는 극중 인물들이 단절을 넘어 새로운 연대를 형성하는 서사적 원리이자, 작가가 연극을 통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이다. 우리는 이를 작가가 제시하는 관계의 시학으로 이해하며, 회복과 연결의 실천을 통해 증언의 공간이자 치유의 장으로 기능하는 연극과 문학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Programme

개회 및 총회		Modératrice : OH Bobae (Univ. nationale de Kangwon)
11:30-12:00	Inscription	
12:00-12:20	Discours d'ouverture	SHIN Junga (Présidente, l'ACEQ)
	Discours d'accueil	Damien PEREIRA (Délégué, Délégation du Québec à Séoul)
12:20-12:30	Rapport sur l'AJEQ	KIM Bohyun (Univ. de Kyonggi)
12:30-12:50	Assemblée générale de l'ACEQ	
12:50-13:20	Pause-sandwichs & café	

1 ^{ère} session	Littérature autochtone	Modératrice : OH Bobae (Univ. nationale de Kangwon)
13:20-14:10	Présentation 1 Les littératures autochtones et la pratique de l'histoire littéraire : pour une approche plurilingue et transautochtone (en français)	
	BRADETTE Marie-Ève (Université Laval, Québec)	
		Discutante KIM Jihyun (Univ. Sogang)
14:10-14:55	Présentation 2 Évoquer l'indicible : territoires, mémoires et langues comme lieux de réappropriation dans <i>Nauetakuan, un silence pour un bruit</i> (en français)	
	KONO Minako (Univ. Rikkyo, Tokyo)	
		Discutante KIM Bohyun (Univ. de Kyonggi)
14:55-15:05	Pause-café	
15:05-15:50	Présentation 3 Canadian Aboriginal mythology and English-speaking Indigenous Literature (in english)	
	KANG Sukjin (Korea Aerospace University)	
		Discutante KI Young-in (Univ. nationale de Chonnam)
15:50-16:10	Pause-café	

2 ^{ème} session	Littérature québécoise	Modérateur : KIM Mose (Univ. Hankuk des Études étrangères)
16:10-16:55	Présentation 4 Post-humain et Post-genre dans <i>Le Silence de la Cité</i> d'Élisabeth Vonarburg	
	LEE Song Yi (Univ. nationale de Pusan)	
		Discutante KWON Seowon (Univ. nationale de Kangwon)
16:55-17:40	Présentation 5 La poétique de la relation chez Wajdi Mouawad dans la tétralogie <i>Le sang des promesses</i>	
	LEE Jooyoung (Univ. Sungkyunkwan)	
		Discutante HONG Inhye (Univ. Yonsei)
17:40-18:00	Discussion générale & Clôture	

| Présentation du Colloque |

La recherche sur la littérature autochtone, depuis sa première mise en place dans les pays anglophones dans les années 1970, continue de soulever des questions pertinentes à notre époque : dans le contexte postcolonial, elle rejoignait ceux qui remettaient en question la canonisation occidentaliste ; aujourd'hui, avec une conscience morale accrue à l'égard des communautés minoritaires et invisibles, la littérature autochtone tend à devenir une composante intégrale de la littérature mondiale. Par ailleurs, l'intérêt porté à cette littérature nous permet de nous affranchir du point de vue selon lequel les Amériques seraient uniquement des terres victimes de la colonisation européenne, pour orienter notre regard vers les êtres marginalisés dans le processus de construction des États, et réfléchir ainsi à l'histoire de violence que ce « Nouveau Monde » a lui-même perpétrée.

De surcroît, s'intéresser à la littérature autochtone nous offre l'occasion de prendre conscience, tout d'abord, de la multiplicité des identités présentes dans les anciennes terres coloniales comme les États-Unis et le Canada ; en ce qui concerne la littérature autochtone québécoise, elle révèle la complexité d'une colonialité superposée, liée à la fois à la position colonisée des Québécois et à leur rôle colonisateur vis-à-vis des peuples autochtones. Enfin, la littérature autochtone contribue également à l'élargissement du concept même de littérature, en s'inscrivant dans une recherche post-coloniale qui tend à abolir la frontière entre littérature orale et littérature écrite.

La première partie de notre colloque sera consacrée à la littérature autochtone, avec la participation de Mme Marie-Ève Bradette, professeure de l'Université Laval et chercheuse renommée dans ce domaine au Québec, Mme Kono Minako, spécialiste de la littérature autochtone issue de l'Association Japonaise des Études Québécoises (AJEQ), ainsi que de Monsieur Seokjin Kang, autorité en Corée dans le champ des études amérindiennes en littérature anglophone. Cette session promet des échanges riches, portés par des perspectives variées issues de différentes nationalités, et couvrant aussi bien les oeuvres francophones qu'anglophones.

La deuxième partie, quant à elle, élargira le cadre de réflexion au-delà de la littérature autochtone pour s'intéresser aux femmes écrivaines qui jouent un rôle central dans le paysage littéraire québécois contemporain. Elle réunira la professeure Song Yi Lee, qui mène activement des recherches dans ce domaine en Corée, ainsi que Mme Joo-Young Lee, doctorante prometteuse, figure montante des études québécoises. Cette session offrira ainsi des communications plus diversifiées et approfondies sur la littérature québécoise.

| Résumé des Interventions |

1. Les littératures autochtones et la pratique de l'histoire littéraire : pour une approche plurilingue et transautochtone (BRADETTE Marie-Ève)

L'autrice de l'article «Native Literatures: Seeking a Critical Center» nous invite à rester «alerte[s] quant aux méthodes critiques et aux voix qui semblent émerger de la littérature elle-même», plutôt qu'à appliquer des cadres théoriques préétablis. Cette approche, visant à recentrer les voix autochtones et à repenser l'histoire littéraire hors des paradigmes occidentaux, offre des outils pour réécrire, entre langues et territoires, l'histoire des littératures autochtones au Québec. Cette communication analysera comment deux œuvres contemporaines – *Mononk Jules* (2020) de Jocelyn Sioui et *Marguerite, le feu* (2023) d'Émilie Monnet – proposent des modèles critiques pour envisager cette écriture de l'histoire littéraire. Elle interrogera aussi la place des femmes autochtones et les conditions de reconnaissance d'un corpus transautochtone encore largement occulté par des enjeux linguistiques, géographiques et genres.

2. Évoquer l'indicible : territoires, mémoires et langues comme lieux de réappropriation dans *Nauetakuan, un silence pour un bruit* (KONO Minako)

Dans cette communication, j'examinerai comment, dans *Nauetakuan, un silence pour un bruit*, premier roman de Natasha Kanapé Fontaine, les jeunes générations affrontent leur identité et retracent le chemin de leurs ancêtres à travers les thèmes du « territoire », de la « mémoire » et de la « langue ».

3. Canadian Aboriginal mythology and English-speaking Indigenous Literature (KANG Sukjin)

One distinguishable characteristic of Canadian literature is the presence of indigenous people's imagination. The interest in indigenous legends and myths triggered by Pauline Johnson's *Legends of Vancouver* led to the publication of Cyrus Macmillan's books on indigenous myths and legends. Later many Canadian writers created creative works based on the indigenous myths and legends. Myths form collective intelligence and identity and support social customs. They are also significant in the study of Canadian imagination and literary heritage. Myths and legends shape significant layers in Canadian literature. Significantly around 1960, they start to emphasize the aesthetics rather than morality. The most interesting being in indigenous literature is trickster. On the one hand, trickster is a supernatural being who has a divine aspect, while he/she retains the weak side of human nature, presenting the wisdom and contradictions of life.

4. Post-humain et Post-genre dans *Le Silence de la Cité* d'Élisabeth Vonarburg (LEE Song Yi)

Elizabeth Vonarburg est une figure importante de la science-fiction au Québec. Dans son roman *Le Silence de la Cité*, l'auteur déploie brillamment sa vision unique du monde. Dans cet ouvrage, elle remet en question la dichotomie traditionnelle occidentale en explorant l'évolution des post-humains et l'écriture générée par l'intelligence artificielle, rendant ainsi obsolète la hiérarchisation basée sur cette dualité. Cette initiative a pour objectif de réformer les inégalités de genre et d'inverser l'hégémonie patriar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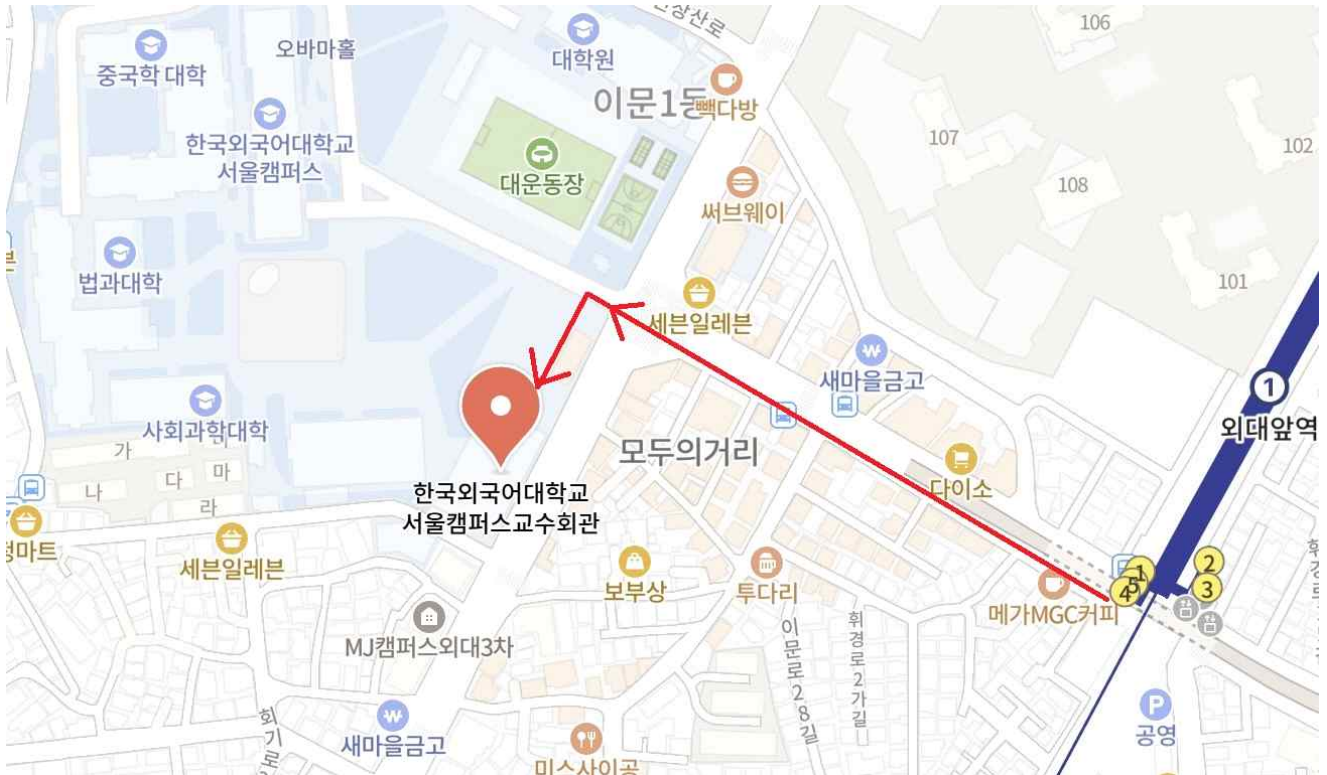
5. La poétique de la relation chez Wajdi Mouawad dans la tétralogie *Le sang des promesses* (LEE Jooyoung)

La tétralogie de Wajdi Mouawad, *Le sang des promesses*, incarne, au-delà de l'expérience intime de l'auteur, une réflexion universelle sur l'humanité et ses relations. Cette étude propose une analyse comparative des quatre pièces à travers les notions de puzzle, racine et rhizome, concepts qui structurent à la fois un principe narratif permettant aux personnages de surmonter la rupture et de tisser de nouveaux liens, et une manière, pour l'auteur, de se relier au monde par le théâtre. Cette «poétique de la relation» proposée par Mouawad nous permettra d'envisager, à travers des pratiques de réconciliation et de connexion, la possibilité pour le théâtre et la littérature de devenir un espace où témoigner et panser.

| 찾아오시는 길 |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Venue: Professor's Building, Seoul Campu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



※ 정문 안으로 들어와서 좌측으로 이동하세요.

※ Please enter through the main gate and proceed to the left

- 도로명: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99
- 지하철 이용시: 1호선 외대앞 역 5번 출구에서 도보 364m 이동
- Google Maps URL: <https://maps.app.goo.gl/jvhVNsZ6EuTPLghDA>
- Google Maps - Plus Code: H3W5+9H Seoul